

동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일방통행’ 눈총

“2천여 회원은 어디로 갑니까, 절차를 무시한 증축 공사를 반대합니다.”

광주 동구에서 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으로서 지역민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동구국민체육센터의 증축을 놓고 일부 회원들과 구청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건립된 산수동 동구국민체육센터를 1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오는 7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이용자·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체 휴관을 실시한다.

체육센터는 건립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했던 배드민턴, 탁구, 농구, 족구, 풋살, 댄스스포츠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4층으로 증축하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체육센터에는 증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 시위와 대자보가 붙는 등 증축 철회를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인들은 일방적인 공사추진과 의견수렴 없는 증축 공사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민원인은 “최소 6개월의 공사기간과 건물이 한층 올라가는 거대한 공사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일방적인 설명회로 알려졌다. 주민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처사다”며 “공공위탁시설인 만큼 정부가 정한 센터운영규정에 대해

공사기간 휴관 안내 등 주민의견 수렴 부족 반발

일부서 주변 교통체증·안전상의 문제 등도 제기

구민들의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공사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부터 공사에 따른 환경평가나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공개해야 마땅하나 일련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구국민체육센터 내부나 홈페이지에는 증축공사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휴관을 안내하는 설명도 없었다. 증축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탓에 일부 회원들은 증축이 진행되

는 것조차 몰랐다.

또 다른 회원은 “장기 회원권으로 등록해 수영을 다니던 회원들이 증축에 따라 월권으로 끊으면서 일요일 이용이 무료에서 유료화 됐다”며 “장기 이용자들이 월권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일요일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주차 및 교통대란과 단독 주택이 밀집한 산수동 한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사에



광주 동구가 국민체육센터의 본격적인 증축공사를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과 교통안전 대책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문제도 우려된다.

구민들이 유료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지와 센터 직원 및 강사 등에 대한 고충문제 등을 고려한 대처방안이 미리 실행됐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구는 2011년 건립 당시 체육센터가 4층으로 지어졌어야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3층 규모(헬스장·수영장·문화강좌실)로만 건립·개방했던 만큼 겨우 예산이 확보된 지금 증축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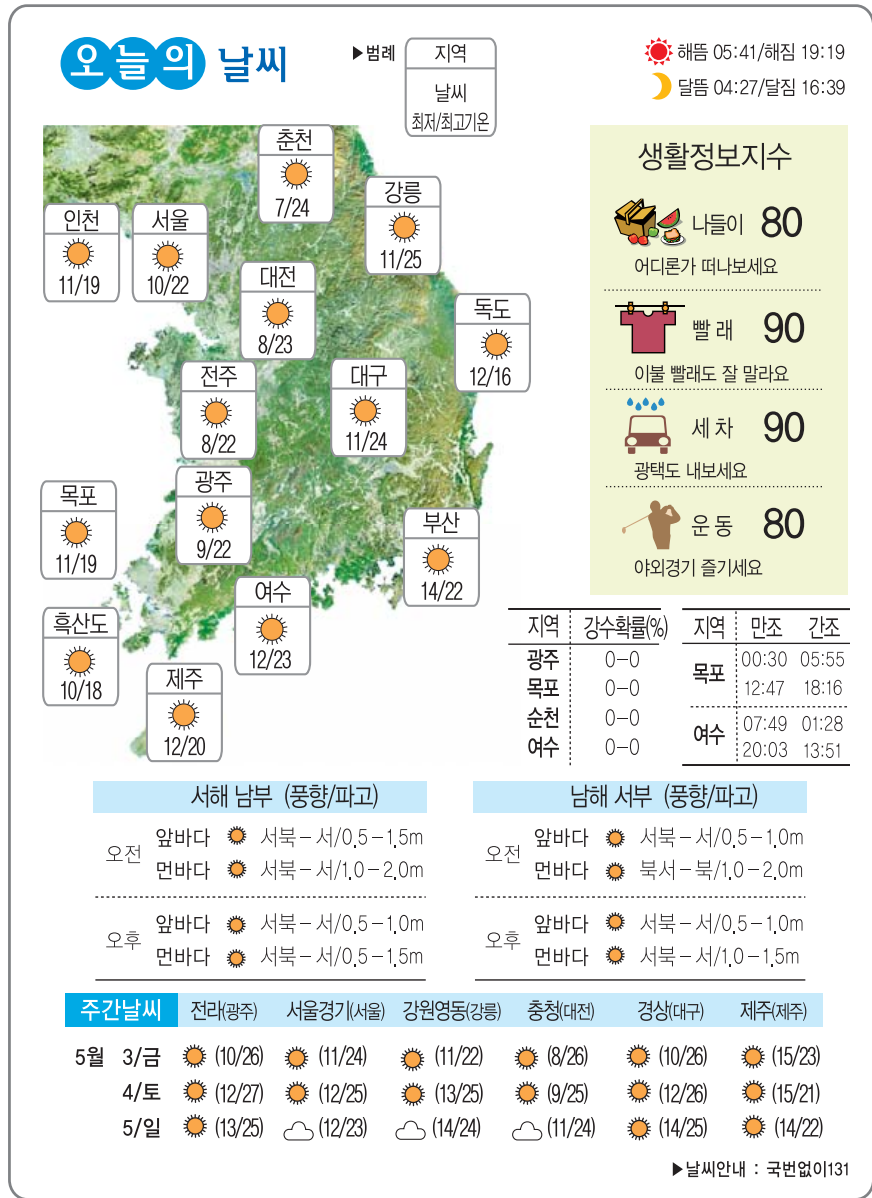
증축 이후 늘어날 체육센터 이용회원의 증가에 따른 협소한 주차장 및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조선대학교 체육관 내에 있는 동구체력인증센터를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으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29일 체육센터에서 이용회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회원들의 착오가 없도록 휴관 안내도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기간 단축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변호사시험 합격률 1위 로스쿨은 서울대 전남대는 40.4%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올해 1월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학교별 합격률로는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대가 1위를 기록했다.

기존 ‘SKY’(서울대·연대·고대) 강세 구도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합격률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를 보면,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80.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올해는 모두 188명이 응시해 15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열린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서울대 합격률은 78.7%로 최고였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2, 3위를 놓고 다투고 있다. 올해는 고려대(76.4%), 연세

대(69%), 성균관대(68.8%), 서강대(65.57%)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지난해 2, 3위는 연세대(73.4%)·고려대(72.0%)였다.

전국 평균 합격률(50.8%)을 웃도는 대학이 12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사이 합격률 격차는 여전히 컸다.

전북대(35.6%), 동아대(31.6%), 충북대(37.3%), 제주대(28.1%) 등 5개 학교는 20~30%대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는 원광대 합격률이 23.5%로 가장 낮았다. 전남대 또한 40.4%를 기록,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8회 변호사시험에는 전국적으로 3천330명이 응시해 1천691명이 합격했다.

/김종민기자

가로·보안등 안전관리 위반 136건 적발

전남도 감찰서 확인…나뉘주기식 수익계약 등 시정 요구

전남도는 1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실태 감찰을 실시,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2천119개소를 보수 조치하고 위반사항 136건을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 전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로등·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고 지역 업체와 소액 수익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찰 결과, 누전차단기 미 설치, 분전함 지면 접지 불량, 절연저항값 기준 미달 등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가로등 2천823개소 가운데 2천119개소를 보수 완료했다.

지중전선 전면 보수 및 노후 가로등주 교체 등이 필요한 704개소는 6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계약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을 했다. 그 결과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시기를 분할해 지역 업체에 나눠주기식 소액수익계약을 체결한 사례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부품에 대한 거래실태가격 조사 없이 미리 정해진 1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 업체별로 부풀든가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산낭비 40건, 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23건 등을 적발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엄중 주의조치 했다.

/김재형기자

MTB열차 타고, 신안 임자도서 라이딩

코레일 광주본부 상품 운영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이선관)가 신안군과 협력해 오는 11일 용산출발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에 자전거 거치대를 연결, 신안 임자도를 라이딩(약 50km)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한다.

1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그간 목포역에서는 기존에 열차를 이용해 자전거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열차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거나 없고, 또 자전거를 분리하고 타야하는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들을 위해 MTB열차를 임시 운행했으나, 임시열차는 부정기적이고 대규모

라이딩을 위한 상품이라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코레일 목포역과 신안군은 정기열차 상품 운영을 위해 힘을 합쳤다. 11일 오후 11시10분에 용산역을 출발하는 열차에 자전거 거치차량을 연결해 12일 오전 4시10분에 목포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임자도를(주요코스 : 전장포항-대광해수욕장-대둔산입도 등) 일주하는 여행상품으로 여행하기 좋은 날씨에 라이딩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 상품은 목포역 여행센터에서 예약 및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환준기자

시각·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나선다

광주 남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약 체결

광주 남구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손잡고 장애인용 TV 보급에 나선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제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용 TV 보급을 위한 저소득층 수요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남구를 비롯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

단체에 보급되는 장애인용 TV 물량은 총 1만5천대이다.

장애인용 TV는 우선 순위에 따라 보급된다. 우선 보급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저소득층 중·위 상이등급자이다. 다만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수

령한 이들은 보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2일부터 31일 사이에 거주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우편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7월에 지원 대상

자를 선정한 뒤 각 세대에 시청각 장애인용 TV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대표전화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tv.kcmf.or.kr)로 하면 된다.

/문철현기자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지원단 발족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장실습 등 활력 기대

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 학교장, 중소기업 CEO, 유관기관 기관장 및 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된 ‘광주 직업계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자문단’이 발족했다.

자문단은 향후 학교전담교무사와 취업진로부장 33명을 위원으로 하는 ‘현장실습위원회’, 정년을 마친 취업진로코칭 전문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25명으로 구성된 ‘취업지원컨설팅단’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업기회 확대, 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등에 협력하게 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등 광주 13개 직업계고 학교장, 고졸 채용 우수기업 한국알프스 최고경영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고졸 취업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관기관은 광주시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언직자

원 개발위원회, 광주전남이노비즈협회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취업지원자문단’을 출범하고 ‘고졸취업활성화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했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기업체 대표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취업지원자문단과 현장실습 위원회, 컨설팅단의 활동으로 취업활성화에 큰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김영집 센터장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혁신